

ICT 기업 M&A 현황 및 시사점

이 경 남*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성장한 ICT 산업은 최근 클라우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비즈니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 금융, 의료, 생산 공정, 그리고 자동차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비즈니스 혁신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7년 시가 총액 기준 상위 10위 기업에 애플, 구글 등 ICT 관련 기업이 7개에 달하며, ICT 산업을 둘러싼 인수 합병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ICT 산업의 위상 변화를 전세계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ICT 기업을 둘러싼 M&A를 산업별, 지역별로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I. 서 론 / 1

II. 글로벌 ICT 기업의 위상 변화 / 2

III. ICT 기업 M&A 현황 / 5

1. 산업별 ICT 기업 M&A 현황 / 5
2. 국가별 ICT 기업 M&A 현황 / 11
3. 주요 기업의 M&A 현황 / 13

IV. 시사점 / 15

I. 서 론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성장한 ICT 산업은 최근 클라우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비즈니스 인프라의 디지털화 및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043)531-4287, knlee@kisdi.re.kr

최근에 언급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한 IT 인프라의 도입을 넘어서서 비즈니스 전반에 ICT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유통, 금융, 의료, 생산 공정, 그리고 자동차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ICT 기술 변화에 따른 ICT 산업의 위상 변화를 전세계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ICT 기업을 둘러싼 M&A를 산업별, 지역별로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글로벌 ICT 기업의 위상 변화

전세계 경제에서 ICT 산업 및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시가 총액(Market Capitalization) 기준 전세계 상위 10위에 속하는 ICT 기업은 애플,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과 함께 중국 텐센트, 알리바바를 포함하여 7개사에 달한다. 이러한 ICT 기업의 위상은 인터넷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닷컴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2000년에 비교할 때 상위 500위 기업 기준 시가 총액 및 기업수에는 못미치나, 상위 기업에서의 집중도는 높아진 양상이다.

시가 총액 상위 업체의 주요 시기별 순위를 살펴보면, 2000년 닷컴 열풍 시기에는 장비업체, PC 기반 OS 및 반도체 제조업체, 네트워크 업체를 중심으로 4개사가 시장을 선도하였다. 이후 IT 버블이 가라앉으면서 2005년에는 PC OS업체인 MS를 제외하고는 10위권에 든 IT 업체는 없으며, 상위 50개사 기준 약 10개사가 전체 시가 총액의 17.1%를 차지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애플을 위시한 스마트폰의 확산과 중국 인터넷 산업의 성장으로 IT 산업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표 1〉 전세계 시가 총액(Market Capitalization) 기준 상위 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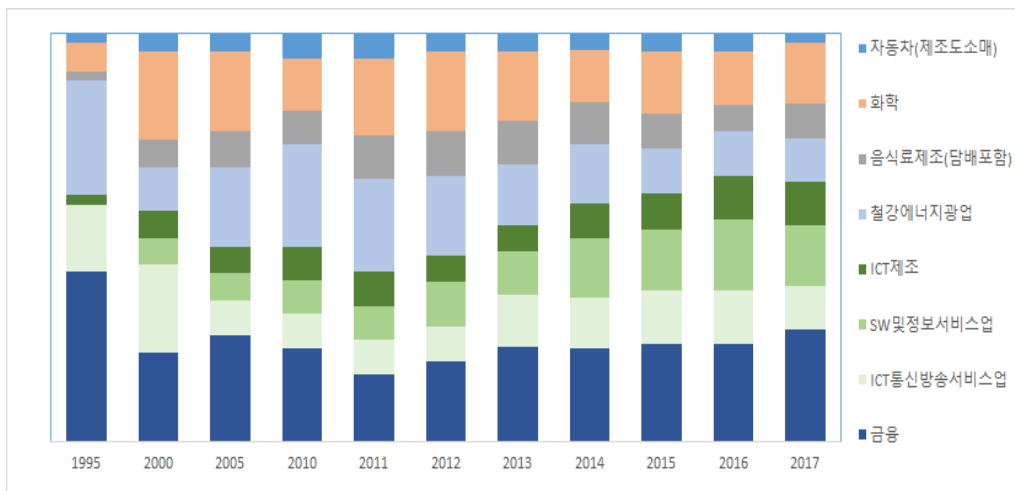
	2000	2005	2010	2015	2017
10위	GE	BP PLC	Exxon	Apple	Apple
	BP	GE	PetroChina	Google	Google
	Cisco	Exxon	Apple	Microsoft	Microsoft
	Exxon	Microsoft	BP	S7 Airlines	Amazon
	Microsoft	Citigroup	ICBC	Exxon	Facebook
	Pfizer	SMT	CCB	Berkshire	Berkshire
	Citigroup	Shell	Microsoft	Amazon	Tencent
	NTT Docomo	Wal-Mart	BHP BILLITON	GE	Alibaba
	Wal-Mart	MRC	China Mobile	Facebook	Johnson & Johnson
	Intel Corp	Procter & Gamble	Berkshire	Wells Fargo & Co	S7 Airlines
ICT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기업수/ 시가 총액 기준)					
50위	16개사(32.0%)	10개사(20.0%)	12개사(24.0%)	17개사(34.0%)	17개사(34.0%)
	시총 35.0%	17.1%	24.2%	38.5%	43.8%
500위	101개사(20.2%)	71개사(14.2%)	64개사(12.8%)	74개사(14.8%)	79(15.8%)
	시총 26.6%	16.7%	16.7%	21.9%	25.0%
주: 1. 시가총액은 매년 12월 1일 기준 2. SMT(Scottish Mortgage Investment Trust), MRC(Mercantile Investment Trust), ICBC(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CCB(China Construction Bank), S7 Airlines ("S7 Airlines" OJSC) 원자료: Thomson Reuters DB					

2015년에는 애플, 구글, MS가 OS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ICT 산업을 주도하였으며,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상거래 및 SNS 가입자를 기반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중국 모바일 및 쇼핑몰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텐센트, 알리바바가 10위 업체안에 편입되었다.

시가 총액 상위 업체의 산업별 추이를 보면, 주력 산업이 과거 철강·에너지, 화학 등 전통 산업에서 유선 통신과 무선 통신을 거쳐 SW 및 정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에는 상위 50위 업체의 60%를 금융과 철강에너지 산업이 차지하였고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 비중은 15% 수준이었다. 닷컴 호황기인 2000년에 통신사업자, SW 및 정보서비스업, 제조업 비중이 각각 20%, 6%, 6%로 급증하였다. 이후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구조조정을 거쳐 통신사업자 비중이 8% 수준으로 축소되고 ICT 제조업과 SW 사업자 비중도 2013년까지 15%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14년부터는 SW 및 정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업자 비중이 증가하여 시총 50위 기업 중 약 17~19개 업체가 ICT 업체에 해당된다. 500위 기준으로는 ICT 기업이 전체 기업의 25.0%에 해당하는데 반해, 50위 기준으로는 34%, 10위 기준으로는 70%에 달하고 있어 상위업체에서의 ICT 기업 독식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림 1] 시가 총액 상위 50개 기업의 산업별 추이 (기업수)



주: 시가총액은 매년 12월 1일 기준
 원자료: Thomson Reuters DB

이렇듯 철강·에너지, 화학 등 전통 산업에서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그리고 SW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이어지는 ICT 산업의 중요성은 최근 산업의 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이 확산되면서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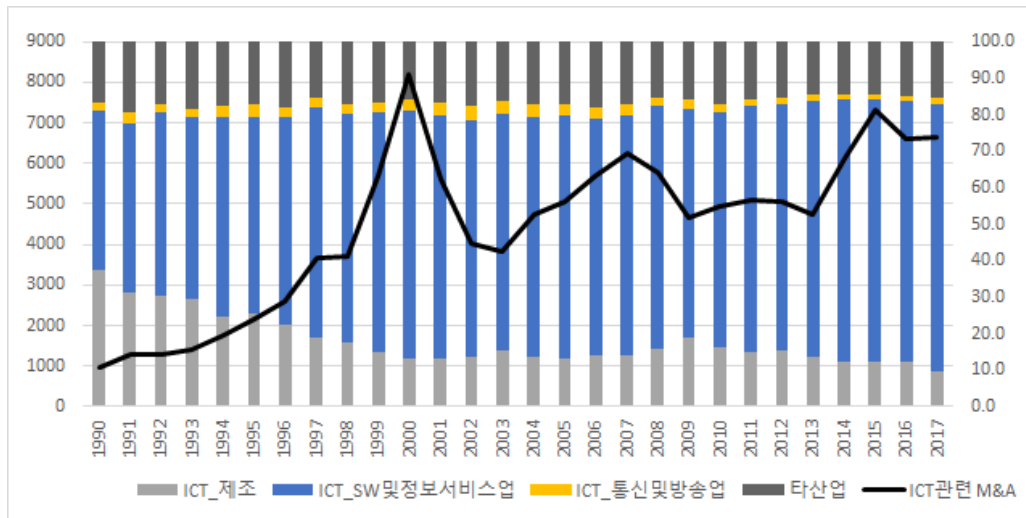
Ⅲ. ICT 기업 M&A 현황

1. 산업별 ICT 기업 M&A 현황

전세계 ICT 기업과 관련된 인수합병(M&A)²⁾ 추이를 보면 [그림 2]와 같다. 2017년 기준 M&A는 약 7천건으로 1990년의 1천건 수준에서 7배 성장하였다. 2000년, 2007년, 2014년을 정점으로 높은 성장을 보인 M&A는 거래 건수로는 과거 2000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대규모 M&A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림 2] ICT 기업 M&A 추이 (거래 건수 기준)

(단위: 개사)



주: 1. ICT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 및 피인수 거래 건수 기준

2. 산업별 비중은 ICT 기업이 인수한 산업별 비중

원자료: Thomson Reuters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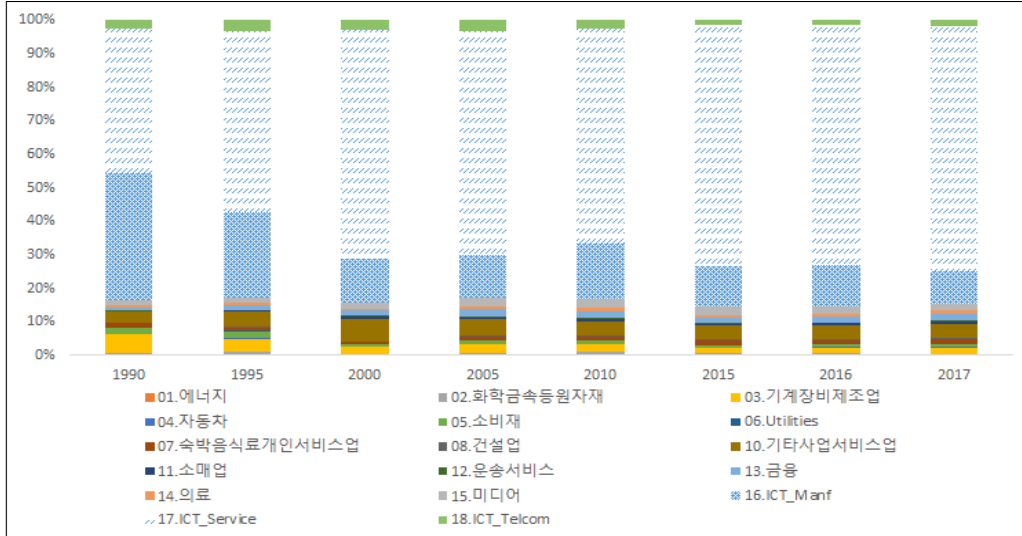
2) ICT기업이 주도한 M&A와 ICT기업을 대상으로 한 M&A를 모두 포함한다.

2000년 닷컴 기업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배경으로 급성장한 M&A는 주로 PC, 유선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입자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구도 속에서 수익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닷컴 버블은 급격하게 가라앉았고, 이와 함께 M&A 거래도 급감하였다. 이후 무선네트워크 및 스마트폰의 확대를 기반으로 SNS 및 상거래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광고 및 수익 구조의 다변화를 시도하면서, 2007년 ICT 기업을 둘러싼 M&A가 다시 6천건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최근 2015년 들어서는 유무선 가입자를 기반으로 광고 및 상거래 등 수익 모델이 견고해졌으며,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되어 디지털 전환 및 혁신을 유도하면서 활발한 M&A가 전개되고 있다.

ICT 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산업별 비중 추이를 보면, ICT 제조업의 비중이 1990년 37.6%에서 2000년 13%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9.6%의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SW 및 정보서비스업에 대한 M&A가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 43.3%의 비중에서 2000년 68.1%, 2017년 73.2%로 증가하였다. ICT 기업의 타산업 인수는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7년 기준 약 1,000건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비중으로 보면 전체의 1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ICT 기술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ICT 기술 역량을 최신허하기 위한 투자 및 관련 기업 인수를 중심으로 M&A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ICT 산업내에서도 ICT 장비 제조업 및 반도체 기업과 통신서비스 기업의 SW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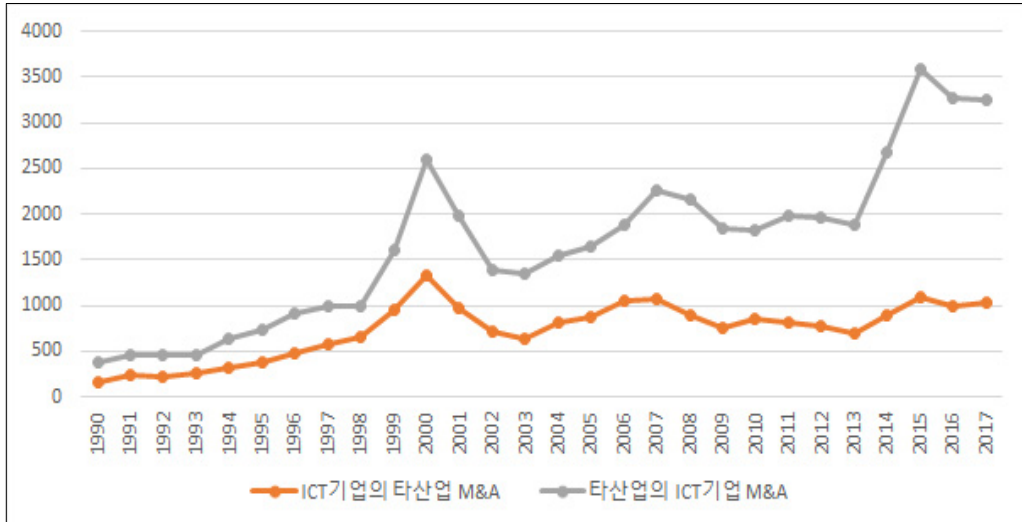
[그림 3] ICT기업의 산업별 M&A 비중 추이



원자료: Thomson Reuters DB

ICT 기업이 인수한 업체들의 세부 산업별 분포를 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ICT 관련 업체 외에도 사업서비스업에 약 30%,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약 15%, 금융 산업에 12%, 기계·장비제조업에 12%의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0년 대비 유틸리티, 숙박 및 음식제공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각각 연평균 11.9%, 9.9%의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택배, 유통 등 운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9.7%, 의료 5.3%, 금융 4.3%의 성장을 보였다.

[그림 4] ICT 기업을 둘러싼 M&A 추이 (거래 건수)



원자료: Thomson Reuters DB

반면, 타산업의 ICT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ICT 기업의 타산업 M&A는 1천건을 전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타산업의 ICT 기업 인수는 2013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즈니스 인프라의 디지털화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 의료, 제조업, 그리고 자동차 등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에서의 비즈니스 혁신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산업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ICT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업 인수가 진행되었다. 실제로 2013년까지 타산업의 ICT 기업 인수가 약 2,000건 수준이었다면,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3,500건을 넘어섰으며, 2016년 3,200건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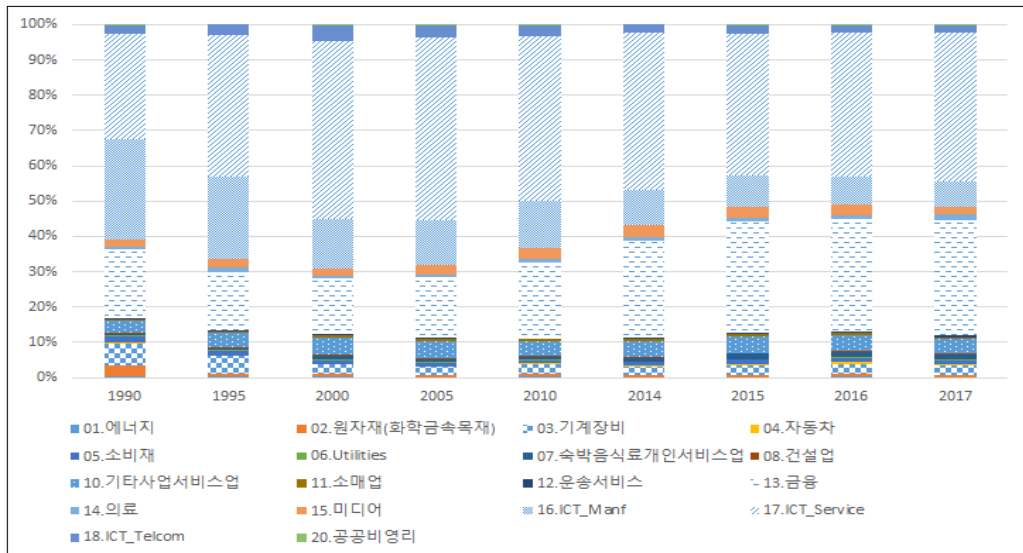
이러한 ICT 업체를 인수하고 있는 기업의 세부산업별 추이를 보면, 2017년 기준 금융 산업³⁾이 약 2,000건, 사업서비스업이 약 300건, 기계장비 제조업이 약 170건,

3) 여기서 금융 산업에는 금융서비스 기업 외에 금융투자 회사, 벤처캐피털 업체, 구글벤처스,

미디어 및 콘텐츠 분야가 150건 규모의 M&A를 단행하였다.

특히, 2010년 대비 물류·유통 및 운송서비스(24.8%), 유틸리티(24.6%), 자동차(14.5%), 의료·바이오(10.9%), 금융(10.9%), 숙박·음식 대인서비스업(9.4%)을 중심으로 ICT 기업에 대한 인수가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보여, 해당 산업이 ICT 기술 및 기업 인수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 타산업의 ICT기업 M&A 비중 추이



원자료: Thomson Reuters DB

산업별 M&A 현황을 거래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4년간 SW 및 정보서비스업 다음으로 ICT 제조업의 M&A 규모도 1/3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ICT 제조업내에서의 반도체 및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M&A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반면, 통신방송업의 경우 포화된 통신방송 시장에서의 타개책으로 SW 및 정보서비스업에 대한 투

인텔벤처스 같은 민간 기업 투자사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순수한 금융 서비스와 ICT 기술의 융합 측면보다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ICT 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다.

자가 과반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ICT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40%에 달한다. SW 및 정보서비스업 분야의 기업은 SW 뿐만 아니라 사업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료 대인 서비스업, 금융, 미디어,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M&A 를 진행해왔다. 특히 투자 금융 회사의 SW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기타 산업으로는 사업서비스업, 미디어, 기계장비제조업에서의 M&A가 진행되었다.

〈표 2〉 ICT 기업의 M&A 투자액 규모 (2014~2017)

ICT전체		ICT제조업		SW및정보서비스업		통신방송업	
〈 ICT 기업이 인수한 산업〉							
SW및서비스업	43.4	ICT제조업	66.2	SW및서비스업	70.8	SW및서비스업	50.7
ICT제조업	35.8	SW및서비스업	15.7	사업서비스업	6.5	ICT제조업	39.5
사업서비스업	3.4	기계장비	4.8	대인서비스업 (숙박음식료등)	5.7	통신방송업	9.5
통신방송업	3.2	소비재	3.6	ICT제조업	3.1	건설업	0.2
대인서비스업 (숙박음식료등)	2.6	에너지	2.2	금융	3.1	금융	0.1
기계장비	2.5	통신방송업	2.1	통신방송업	3.0		
소비재	1.7	사업서비스업	1.0	미디어	2.4		
금융	1.7	의료	0.8	유통	1.8		
〈 ICT 기업을 인수한 산업〉							
투자금융	35.4	ICT제조업	59.0	투자금융	43.3	SW및서비스업	36.0
ICT제조업	24.2	투자금융	21.3	SW및서비스업	29.7	ICT제조업	26.4
SW및서비스업	21.1	통신방송업	7.2	ICT제조업	6.9	통신방송업	24.6
통신방송업	5.9	기계장비	6.1	통신방송업	4.5	투자금융	10.1
기계장비	3.1	SW및서비스업	2.6	사업서비스업	3.5	사업서비스업	1.2
사업서비스업	2.5	소비재	0.9	미디어	2.3	소비재	1.1
미디어	1.5	의료	0.7	기계장비	1.7	의료	0.4
의료	1.2	원자재(화학금 속목재)	0.7	대인서비스업 (숙박음식료등)	1.6	미디어	0.1

주: 거래 금액이 공개된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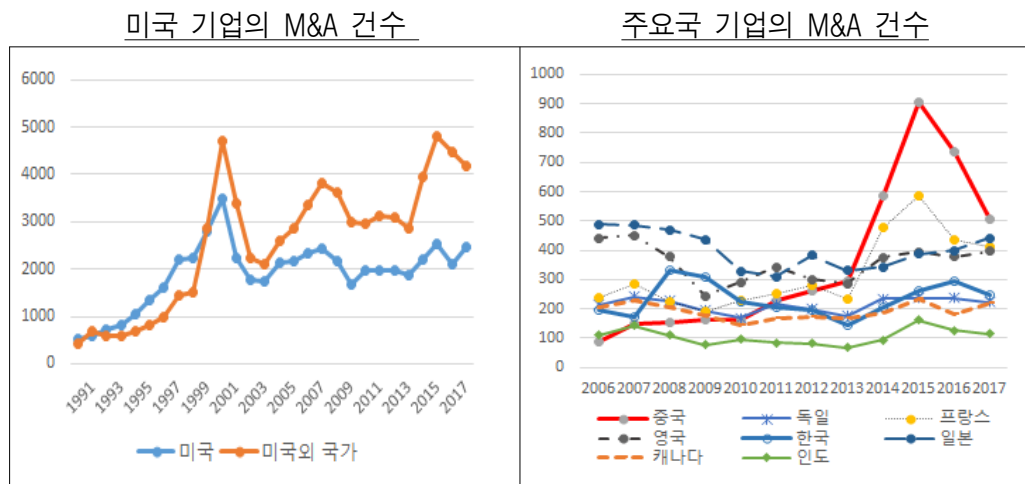
원자료: Thomson Reuters DB

2. 국가별 ICT 기업 M&A 현황

전세계 ICT M&A에서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ICT 기술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2000년 이후 매년 2,000건 전후의 기업을 인수하고 있다. 전세계 M&A에서 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7년 기준 약 3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 55.9%, 2000년 42.6%, 2010년 40.2%에 비해 낮아진 것이나, 여전히 전세계 M&A의 1/3 이상이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미국과 함께 영국, 일본, 프랑스 국적의 기업들도 전세계 ICT M&A의 6% 전후의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독일, 캐나다, 한국도 3% 전후의 비중으로 ICT 기업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그림 6] 글로벌 기업의 국적별 M&A 추진 건수



원자료: Thomson Reuters DB

최근에는 특히 중국의 M&A가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005년 2.0%(100건)에 그쳤던 M&A 비중이 2015년 12.3%(900건), 2016년 11.2%(736건)

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중국 내수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을 필두로 활발한 M&A가 이루어지고 있다.

M&A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자국 기업간의 M&A가 주를 이루는 경우와 국경을 넘어선 지역의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표 3>은 최근 4년간 국가간(cross-border) M&A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국가별 글로벌 M&A의 적극성 및 글로벌 M&A 시장에서의 해당 국가에 대한 매력도를 보여준다. 미국은 외국 ICT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M&A를 진행해왔으며, 역으로 피인수대상으로서의 매력도도 가장 높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우 자국내 M&A 비중(90.6%)이 월등히 높기는 하지만, 미국, 홍콩, 영국, 독일 등 타지역 국가에 대한 M&A도 적극적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자국내 M&A 비중(81.9%)이 월등히 높은 편이나, 미국, 영국, 중국 기업을 4년간 각각 95건, 27건, 14건 인수할 정도로 글로벌화 기술 인수에 적극적이다. 한국의 경우 자국 기업에 대한 M&A비중이 94.5%로 매우 높다.

전반적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EU 회원국간에 단일 시장을 모토로 시장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간의 교차 M&A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특히, 주요 유럽 국가 뿐만 아니라 여타 유럽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프리카 지역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M&A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최근 4년간 ICT 기업 인수국으로서 6위, 피인수국으로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M&A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자국 기업에 대한 M&A 비중이 월등히 높은 반면, 해외 업체에 대한 M&A는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인수국으로서 국경을 넘은 ICT M&A 거래는 전세계 21위에 수준이며, 피인수국가로서 외국과의 M&A 거래 규모는 전세계 19위로 글로벌 M&A 매력도가 높지 않다.

〈표 3〉 ICT 관련 국가간 M&A 현황 (2014~2017)

피인수 인수	미국	중국	홍콩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오스트 레일리아	스웨덴	인도
미국	7,263	63	8	34	26	111	436	127	340	92	56	107
중국	72	2,471	36	9	12	7	18	15	5	6	3	8
홍콩	24	93	147	3	16		4	4	4	3	1	3
일본	95	14	6	1,287	8	6	27	6	8	5		10
한국	21	6		5	954	3	1		5			
프랑스	74	3		4	1	1,552	30	35	12	3	11	6
영국	213	5	2		6	52	910	47	17	23	15	10
독일	76	1	3	1	4	26	25	619	4	4	6	6
캐나다	269	2	2	1	1	8	36	14	399	10	7	4
오스트 레일리아	66		5		2	4	20	8	6	392		3
스웨덴	47					9	24	18	4	2	273	3
인도	65	2	1	1		1	10	5			2	388

원자료: Thomson Reuters DB

3. 주요 기업의 M&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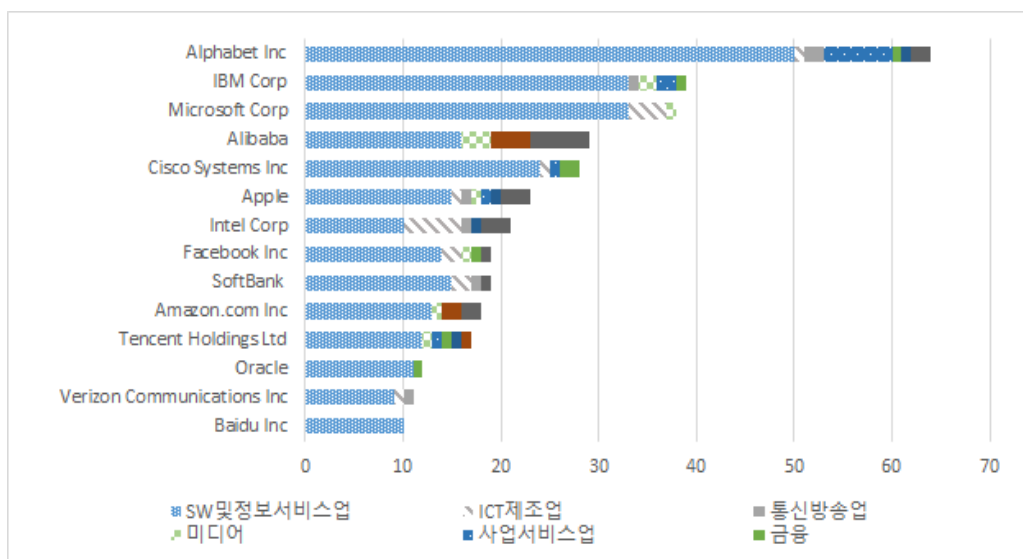
주요 기업의 M&A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가장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진행한 기업은 글로벌 플랫폼 업체인 구글이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 및 인터넷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기술, 이미지 앱, 모바일 광고, 무선 공유 기술 등 SW 업체를 적극적으로 인수하였으며, 이와 함께 교육, 게임, 마케팅, 음식점, 부동산, 의료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사물 인식, 증강 현실, 인공 지능, 드론 등의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로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MS의 경우에는 약 30건 이상의 인수합병을 진행하였는데, 게임 등 다양한 모바일앱 개발업체를 주로 인수하면서 보안, 위치, 광고관리, 주행탐지 관련 업체를 인수하였고, 소셜 플랫폼 역량 보완을 위해 비즈니스용 SNS 업체인 LinkedIn을 인수한 바 있다.

애플의 경우에는 특정 전략에 부합하는 타게팅된 기업 인수를 특징으로 하는데, 플랫폼 및 모바일 앱과 관련된 SW 업체와 함께 최근 들어 단말기(헤드폰, 가상키보드, 무선전력관리, 신체정보측정), 증강현실, 이미지, 위치정보, 인공지능, 음성인식, 안면인식과 관련된 업체를 다수 인수하면서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구글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업 인수를 행한 IBM은 B2B 시장 기반의 역량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보안, 데이터 전송 및 관리, 비디오 서비스 업체를 인수하였다. 최근에는 특히 인공지능 관련 자연어 처리, 인지컴퓨팅의 기술과 함께 의료, 마케팅, 인사재무관리 분야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영역 확대를 위해 관련 업체 인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림 7] 주요 ICT 기업의 M&A 건수 (2014-2017년)



원자료: Thomson Reuters DB

IV. 시사점

ICT 기술을 비즈니스 전반에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이미 소비자 거래 패턴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 광고 및 쿠폰 제공,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과 연동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가상현실 기반 쇼핑 및 드론 택배 서비스 등 새로운 시도가 진행중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임상지원 결정시스템, 맞춤형 정밀 의료서비스, 원격 의료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 개인간(P2P) 금융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전세계 경제에서 IC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2017년 시가 총액 기준 전세계 상위 10위에 7개의 ICT 기업이 포함되었으며, 50위에는 34%에 해당하는 17개사가 포함되었다. 특히 OS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ICT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애플, 구글, MS와 함께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상거래 및 SNS 가입자 기반의 거대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모바일 및 쇼핑물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SW 및 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성장 기조는 M&A 추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과거 전통산업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M&A가 SW 기술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고, 타산업의 M&A 또한 SW 및 정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10년 대비 물류, 유통 및 운송분야, 유틸리티, 자동차, 의료·바이오, 금융, 숙박·음식점 등 대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ICT 기업에 대한 인수가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M&A를 보면 ICT 기술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 생태계가 형성된 미국이 전세계 M&A의 1/3 이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의 M&A가 최근 급증하였다. 이와 함께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의 ICT 기술 M&A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최근 4년간 ICT 기업 인수국으로서 6위, 피인수국으로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M&A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자국 기업에 대한 M&A가 94.5%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인수국으로서 국경을 넘은 ICT M&A 거래는 전세계 21위에 수준이며, 피인수국가로서 외국과의 M&A 거래 규모도 전세계 19위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M&A 대상국으로의 매력도가 저조하다.

한국 기업의 경우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CT 제조업을 중심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최근 비즈니스 중심축이 ICT 제조업에서 SW 및 정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SW 기술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미 10년전부터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M&A를 적극적으로 단행해왔고 그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기존의 견고한 가치사슬 속에서 안주해왔던 기업들이 새로운 신규 시장 및 수익 모델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조선일보(2017. 10), “거품론 밀어냈다, 미 테크 기업들, 무한질주“.

McKinsey&Company(2015), “벤처산업 선순환 구조 구축 - 한국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장기성장 경로 모색”.

Thomson Reuters DB